

10/23/16

설교 제목: 크리스찬의 참된 삶의 목표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고린도전서 10:31-33

(고전 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2)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고전 10:33)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영국의 정치가요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은 사람을 거미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 벌 같은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분류하였습니다.

거미는 다른 곤충이나 벌레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거미줄을 쳐놓고 마침내 줄에 걸려 빠져 나가지 못하는 곤충이나 벌레들을 기다렸다가 잡아 먹으며 사는 사악한 놈이기에 거미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꼬지를 하는 악한 사람을 가르킵니다.

개미들은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여 자신들이 먹을 양식을 굴을 파서 쌓아 놓고 먹고 사는데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나누어 먹는 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살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므로 개미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은 자신만을 아는 이기주의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런가 하면 벌은 쉬지 않고 이 꽃과 저 꽃을 날아다니면서 꿀을 채집할 뿐더러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들의 꽃가루를 옮겨 수정을 해 줌으로써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또한 부지런히 모은 꿀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그들은 개미 못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삽니다.

그러기에 벌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돕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복음 10 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바로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다 등장합니다.

혹시라도 이 비유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 소개하겠습니다.

(눅 10:30)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눅 10: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눅 10: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눅 10: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눅 10: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눅 10:35)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물건을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을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차례로 그곳을 지나가게 되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본척 피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응급 치료를 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자신이 기꺼이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비유에는 거미같은 사람, 개미같은 사람, 벌같은 사람이 모두 나옵니다.

강도는 바로 거미같은 사람입니다.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 그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회에 암적인 존재입니다.

주어진 권력을 악용하여 자신의 재산을 늘려 가는 정치인들,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남을 속여 먹고 사는 사기꾼들, 자신의 배경으로 자기 자식만 좋은 학교 집어 넣으려는 파렴치한 부모들 등등 모두가 이 부류에 속합니다.

저는 돈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한다는 말을 무척 싫어합니다.

개처럼 돈을 번 사람이 정승처럼 돈을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처럼 돈을 번 사람은 개처럼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돈을 벌 때도 정승처럼 올바르게 깨끗한 방법으로堂堂하게 벌고 쓸 때도 정승처럼 올바르게 깨끗하고堂堂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개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의 안전과 행복만을 위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도 빠짐없이 출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한 처녀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는 기도 시간마다 항상 배우자를 달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께서 매일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가 자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답시고 "하나님 저희 부모님에게 좋은 사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별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며 살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기의 시간과 물질, 정성과 사랑을 내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여태까지는 거미나 개미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별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고전 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자신의 마음 먹은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남이사 전봇대를 뽑아 이빨을 쏘시든 말든 왜 참견이야 내 자유이지” 이런식으로 말합니다.

전봇대를 뽑아 자신을 위해 써 보십시오.

근처 모든 집에 전기가 끊겨 집니다.

그러니 참견을 안할 수가 없지요.

교인들 중에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곳이 없는데 왜 교회에서는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합니까?’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어 실족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으면 먼저 믿어 지식을 가진 우리는 그것을 해도 되는 그 자유를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무슨 일이든 하고자 할 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고전 10:23)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고전 10:24)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전 10:25)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고전 10:26)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고전 10:27)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고전 10:28)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행사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이방신에 바쳐졌던 싼 고기를 구입해서 사먹을 수 있었는데 남에 집에 초대 받아 가서 그 고기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를 따지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 한 분 뿐이시고 그러므로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 다 먹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만일 누군가 그 음식은 우상에게 올렸던 음식이라고 말하면 우상에게 올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행사할 때 지식으로만 결정하지 말고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로 결정해야 합니다.

(고전 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간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 드릴 때 가장 행복해 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목표를 세우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야 합니다.

(고전 10:32)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란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의 신앙 생활이나 삶에 도움이 되어야지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를 세워 주며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나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반하는 일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말 한 마디라도 유익된 말을 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도움이라도 준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내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자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한 것도 그 상급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째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기를 위해 전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되지요?

저도 전에는 복음을 전해도 전해도 못 알아듣고 딴 소리를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이 야속하고
바보같아 보이고 어떤 때는 정말 밉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복음을 못 알아듣는 그 사람들이 정상이고 오히려 복음이 믿어지는 내가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 받도록 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며 가치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은 당신 혼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싶으셔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싶으셔서 안달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전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같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 우리 말을 듣고 당장 교회를 가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든지 등등 움직여 주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전도에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고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전도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만 전하여 씨를 뿌려 놓으면 됩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내 전도를 받고 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도를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 눈치보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로마 어느 대학 정문에 “그 다음에는요(After that what)?” 라고 써있는 현판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이 대학 정문에 걸리게 된다는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학 설립자가 대학을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돈 많은 기부인이 주는 장학금을 타기 위하여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기부인이 청년에게 장학금을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묻습니다.

청년은 당연히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니겠다고 대답했고 그 대답을 들은 기부인은 “그 다음에는요(After that what)?”하고 묻습니다.

청년은 대학을 졸업을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기부인은 또 “그 다음에는요(After that what)?”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변호사 시험을 보아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기부인은 또 “그 다음에는요(After that what)?”라고 묻습니다.

청년은 그 다음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기부인은 또 “그 다음에는요(After that what)?”라고 묻습니다.

청년은 그 다음엔 아들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기부인은 또 “그 다음에는요(After that what)?”라고 묻습니다.

청년은 그 다음엔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겠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기부인은 또 “그 다음에는요(After that what)?”라고 묻습니다.

청년은 질문의 심각함을 깨닫고 긴장하면서 “죽겠죠.”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기부인이 “아니 그러면 당신은 고작 죽기위해 내 장학금을 받아가려고 하는 것인가요?”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기부인의 말에 굉장한 충격을 받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후에 이 청년은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고 자신이 설립한 대학 정문에 바로 이렇게 “그 다음에는요(After that what)?”를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재산을 많이 남겨 자손들에게 물려 주고 죽는 것입니까?

재산 많이 남겨 두고 죽으면 자손들끼리 싸움만 일어납니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좀 멋진 인생의 목표를 지니고 삽시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공부해서 남 줍시다.

돈벌어 남 줍시다.

건강해서 남 줍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시키고자 애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우리를 보시고 기쁘셔서
우리 속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길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